

KIA, 1회 7득점 폭발 ... 임기영 '낮경기 징크스' 깼다

KT에 선취 2점 내주고 1회말 맹공 7-2 대승 임기영 "포수 믿고 던져 올 시즌 규정이닝 채우겠다"



임기영이 시즌 첫 연승에 성공하면서 팀의 '낮경기 징크스'를 깼다.

KIA 타이거즈가 22일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KT 위즈와의 시즌 14차전에서 7-2 승리를 거뒀다.

7이닝(89구) 6피안타 6탈삼진 2실점(1자책점)의 호투를 선보인 임기영이 지난 16일 삼성전(7이닝 2실점) 이후 연승을 기록했다. 시즌 4승.

1회부터 두 팀이 실책을 하나씩 주고받으면서 긴 이닝을 보냈다.

1회초 1사에서 KIA 선발 임기영이 황재균에게 우중간 2루타를 맞았다. 이어 강백호의 타구가 우익수 방향으로 뒀다. 짧은 타구에 터커가 멀리 달려 나왔지만 글러브 맞고 공이 떨어지면서 1사 1-3루가 됐다. 장성우의 안타가 이어지면서 KIA가 선취점을 내렸다. 이어 호잉의 희생플라이로 임기영의 두 번째 실점이 올라갔다.

1회초 2실점은 했지만 1회말 KIA의 타선이 폭발했다.

선두타자 최원준의 볼넷 뒤 1루수 포구 실책으로 김선빈도 걸어나갔다. 이어 최형우와 황대인의 안타에 이어 터커의 2루타까지 이어졌다. 순식간에 3-2를 만든 KIA는 김태진의 적시타로 1점을 보냈다.

나지완의 삼진으로 이날 경기 첫 아웃카운트가 올라갔지만, 한승택도 안타 행진에 동참하면서 타점을 올렸다. KIA의 맹공에 KT 선발 소병준은 1사 1-3루에서 조기강판됐다.

이어 출격한 엄상백을 상대로 KIA는 박찬호의 적시타와 최형우의 밀어내기 볼넷으로 7-2로 점수를 벌였다.

1회를 넘긴 뒤 임기영이 공격적인 피칭으로 빠르게 이닝을 지워갔다.

2회 심우준에게 이날 첫 탈삼진을 뽑아내는 등 삼자범퇴. 3회 1사에서 황재균과 강백호에게 연속 안타는 맞았지만, 장성우와 호잉을 각각 우익수와 유격수 플라이로 처리했다.

4회에는 연속 탈삼진으로 투아웃을 만든 뒤 신본기를 유격수 땅볼로 잡고 다시 삼자범퇴 이닝을 만들었다. 5회도 유격수 박찬호의 좋은 수비에 힘입어 연속 삼자범퇴로 마무리했다.

6회 2사에서 다시 한번 위기가 찾아왔다. 호잉과 김민혁에게 연속 안타를 맞으면서 2사 1-3루가 됐지만, 천성호의 방망이를 헛뜯게 하면서 실점 없이 이닝을 끝냈다.

7회에도 마운드에 오른 임기영은 직접 김태훈의 타구를 잡아 원아웃을 만든 뒤 심우준을 중견수 플라이, 조용호를 스탠딩 삼진으로 잡고 이날 등판을 마무리했다.

이후 홍상삼과 이준영이 8-9회를 실점 없이 막아주면서 경기는 7-2, KIA의 승리로 끝났다.

올 시즌 낮 경기에서 1승 1무 21패, 승률 0.045로 부진했던 KIA는 임기영의 호투로 귀한 승리를 보냈다.

1회 이후 빠른 페이스로 공격적인 피칭을 한 임기영은 "올라가기 전에도 그렇고 더 집중하려고 혼자 말도 하면서 경기했다. 한 타자, 한 타자 잡자는 생각밖에 없었다"며 "(집중력을 잃지 않기 위해) 빨리 치라고 던졌던 것 같다. 1회 생각보다 투구수가 적었다. 점수 차가 어느 정도 있으니까 줄 것은 주고 끊을 것은 끊자는 생각으로 편안하게 했다. 그 다음 회부터 공격적으로 던지다 보니 야수들이 수비도 더 잘해줬다. 야수 믿고 편하게 던졌다"고 말했다.

임기영은 빠른 승부를 위해 힘 있는 직구도 잘 활용했다. 이날 임기영은 48개의 직구를 던졌고, 이중 38개를 스트라이크존에 꽂아 넣었다. 최고 구속은 144km, 평균 직구 구속은 138km였다.

임기영은 "1회에는 직구가 안 좋다고 생각했는데 2회 때부터 괜찮다고 느껴서 (한) 승택이랑 이야기 많이 하면서 직구를 활용했다. 승택이 리드가 좋았다. 포수 믿고 더 공격적으로 가자는 생각이었다. 앞서 사인 나고 아니다 싶어서 고개 흔들 때가



22일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2021 프로야구 kt wiz와 KIA 타이거즈의 경기에서 KIA 선발투수 임기영이 6회에 투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다 안타를 맞았다. 그다음부터 믿고 던지면서 결과가 좋게 나왔다"고 말했다.

또 "어제도 중간 투수들 고생 많이 해서 볼 개수

줄어가고 싶었다. 두 경기 연속 7이닝을 소화한 게 가장 만족스럽다. 선발은 이닝을 길게 끌고 나가야

한다. 그렇게 하면 승이 따라올 것이다, 올 시즌 목표

표는 규정이닝만 생각하고 있다"고 이닝에 욕심내면서 남은 시즌을 보내겠다는 각오도 밝혔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안산

도쿄올림픽 3관왕 안산 양궁세계선수권 정조준

혼성단체·여자단체·개인전 출전

도쿄올림픽 3관왕 안산(20·광주여대)이 혼성전에서 열린 2021 세계양궁선수권대회 이틀째 리커브 여자 랭킹라운드에서 2020 도쿄올림픽 3관왕인 안산이 646점을 쏘아 1위에 올랐다.

안산은 2021 세계양궁선수권대회 혼성 단체전(혼성전)에 김우진(청주시청)과 함께 한국 대표로 나선다. 안산은 24일(한국시간) 혼성단체전 금메달 레이스에 돌입한다. 이어 남녀 단체전, 26일 여자 개인전에 출전한다.

21일(현지시간) 미국 사우스코타주 양크턴에서 열린 2021 세계양궁선수권대회 이틀째 리커브 여자 랭킹라운드에서 2020 도쿄올림픽 3관왕인 안산이 646점을 쏘아 1위에 올랐다.

남자 랭킹라운드에서는 김우진이 677점으로 선두에 자리해 안산과 함께 혼성전에 나서게 됐다. 한국 양궁은 도쿄올림픽과 마찬가지로, 랭킹라

운드에서 가장 좋은 성적을 낸 남녀 선수에게 이번 세계선수권 혼성전 출전권을 주기로 했다.

안산은 도쿄 올림픽에서도 랭킹라운드 출전해 총 72발(70m)에서 680점을 쏘아 올림픽 신기록을 작성하고 1위로 통과했다. 그만큼 컨디션이 좋다는 얘기다. 당시 안산은 도쿄올림픽에서 대표팀 '막내' 김제덕(경북일고)과 함께 혼성전 금메달을 따내 3관왕의 첫 단추를 끼운 바 있다.

남자부에서 김제덕은 6위, '만형' 오진혁(현대제철)은 7위에 올랐다.

두 선수가 똑같이 653점을 쏜 가운데, 10점을 28차례 쓴 김제덕이 23번 쓴 오진혁을 제치고 6위에 자리했다.

여자부에서는 장민희(642점·인천대)가 3위, 강채영(640점·현대모비스)이 4위를 기록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연합뉴스

상대 자책골 얻고도 ... 광주FC, 전북에 1대 2 패배

광주FC가 '디펜딩 챔피언' 전북현대와의 홈경기에서 아쉽게 승점 사냥에 실패했다.

광주는 지난 21일 광주축구전용구장에서 열린 전북과의 하나원큐 K리그1 2021 31라운드 홈 경기에서 1-2로 패했다.

상대의 실수로 승점을 더할 기회를 얻었지만 헤이스의 페널티킥이 빛나고, 상승세의 주역인 골키퍼 윤평국의 아쉬운 실수도 나왔다.

엄원상을 앞세운 광주가 빠르고 적극적인 공격으로 전북을 공략했다.

전반 15분 상대의 실수로 광주가 득점 기회를 얻었다.

전북 김민혁의 백패스가 나왔고, 골키퍼 송범근이 머리로 간신히 공을 밀어냈다. 그러자 엄원상

이 달려가 공을 잡았고, 페널티 지역에서 슈팅을 시도하는 순간 상대 수비수 이용의 발에 걸려 넘어졌다.

비디오 판독결과 페널티킥이 선언되면서 헤이스가 키커로 나섰다. 그러나 헤이스의 슈팅이 크로스바 맞으면서 광주가 선취 득점의 기회를 놓쳤다.

전반 22분 엄원상의 패스를 받은 김주공의 슈팅은 아쉽게 골대 옆을 지나갔다.

전반전을 0-0으로 마무리한 광주가 후반전 공세를 이어갔지만 14분 백승호에게 선제 실점을 기록했다.

김효영 감독이 후반 17분 헤이스를 대신해 엄지성을 투입해 분위기 전환에 나섰다. 20분에는 허을, 여봉훈, 김봉진 카드로 승부수를 띄웠다.

그리고 후반 34분 광주가 동점에 성공했다. 역습 상황에서 오른쪽에서 전진하던 엄원상이 중앙에 있던 허을에게 크로스를 올렸고, 공은 전북 수비수 구자룡에 맞으면서 자책골이 됐다.

하지만 광주가 아쉽게 승점을 더하는 데는 실패했다.

후반 추가 시간 증원에서 길게 올라온 공을 잡기 위해 골키퍼 윤평국이 앞으로 나섰지만, 공이 손에 맞고 옆으로 떨어졌다. 윤평국 옆에 있던 전북 송민규가 떨어지는 공을 오른발 슈팅으로 연결하면서 광주의 골망을 흔들었다.

이와 함께 추석 연휴 안방에서 제주와 전북을 상대한 광주는 1무 1패를 기록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고진영 포틀랜드 클래식 우승 최경주 챔피언스 투어 준우승

고진영(26)이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캄비아 포틀랜드 클래식(총상금 140만 달러) 우승을 차지했다.

'코리안 맹크' 최경주(51)는 미국프로골프(PGA) 챔피언스 투어 샌퍼드 인터내셔널(총상금 180만 달러)에서 준우승했다.

고진영은 지난 20일(한국시간) 미국 오리건주 웨스트 린의 디 오리건 골프 클럽(파72·6478야드)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 3라운드에서 버디 3개로 3인더파 69타를 기록했다.

최종 합계 11언더파 205타를 친 고진영은 공동 2위인 이정은(33)과 교포 선수 오수현(호주)을 4타 차로 따돌리고 정상에 올랐다.

올해 7월 VOA 클래식에서 이은 시즌 2승, LPGA 투어 통산으로는 9승을 달성했다. 이 대회 우승 상금은 21만 달러(약 2억4000만원)다.

이번 우승으로 올해 한국 선수들은 LPGA 투어에서 4승째를 따냈다. 고진영이 혼자 2승을 거뒀고, 박인비(33)와 김효주(26)가 1승씩 기록했다.

또 이 대회에서 한국 선수가 우승한 것은 2009년 허미정(32) 이후 올해 고진영이 12년 만이다. 동명이인인 이정은 두 명은 모두 10위 안에 들었다.

최경주는 20일(한국시간) 미국 사우스코타주 수폴스의 미네하하 컨트리클럽(파70·6729야드)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 3라운드에서 버디 1개로 1언더파 69타를 쳤다. 최종 합계 12언더파 198타를 기록한 최경주는 대런 클라크(북아일랜드), 스티브 플레시(미국)와 함께 연장전을 치렀다.

18번 홀(파4)에서 진행된 연장에서는 1차 연장에서 플레시가 탈락했고,



고진영



최경주

최경주는 약 3m 버디 퍼트가 왼쪽으로 살짝 빗나가 클라크와 함께 2차 연장에 돌입했다. 같은 홀에서 이어진 2차 연장에서는 클라크가 버디를 잡아 우승을 차지했다. 최경주는 플레시와 함께 공동 2위다.

2002년 한국 선수의 PGA 정규 투어 첫 승을 따냈던 최경주는 그로부터 19년이 지난 올해 한국인 첫 PGA 챔피언스 투어 우승에도 도전했으나 1차 연장에서 살짝 빗나간 버디 퍼트가 아쉬움을 남겼다.

최경주는 "2차 연장에서 티샷이 나무를 맞아 우승을 내줬다"며 "그래도 앞으로 더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다는 자신이 생겼고, 즐겁게 대회를 마쳤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 대회 우승 상금은 27만 달러(약 3억1000만원), 공동 2위인 최경주와 플레시에게는 14만4000 달러씩 돌아간다. /연합뉴스